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2일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가 유권자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운태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가 22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 시장을 찾아 유권자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웅섭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가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여성 유권자와 악수를 하며 환표를 부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3無 선거... 거리·시장 돌며 '얼굴 알리기'

(울동·로고송·확성기)

### Ⓢ 선택 6·4 지방선거 D-12

#### 정속모드 속 서민행보 후보들 본격 표발같이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2일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표발같이 나섰다. 각 후보들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의식한 듯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다. <관련기사 3면> 예년처럼 유세차량을 이용해 신나는 로고송과 울동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보다는 목례를 하거나 피켓을 들어 후보의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대신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로고송이 오히려 유권자를 자극,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유세차량을 이용해 연설 또는 로고송을 틀었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도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쾌한' 문구 대신 '안철'과 '행복' '비전'을 약속하는 문구가 많았다. 광주시장 후보들은 거리 유세와 재래시장 방문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 속으로 파고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앞에서 첫 거리유세를 한 뒤 광주시장 선거 출정식에 참석했다. 윤 후보는 "광주 정신이 실종되어 가는 광주, 살기 어려워 떠나는 광주, 대한민국에서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광주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군립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자 중심이 되는 낮은 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오전 8시부터 서구 관천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거리유세를 했다. 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광주의 미래와 직결돼 있고 '안철수의 낙산공원'에 의해 깃발한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4년간 이룩했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광주시민과 합

께 빛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섭 후보도 오전 7시30분부터 광주시장 앞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말바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 후보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안철수·김한길 대표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자"며 "광주정신에 걸맞은 정의로운 경제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재, 통합진보당 윤민호, 노동당 이병훈, 무소속 이병환 후보도 이날 거리유세와 주요공약 제시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이종호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 통합진보당 이상수 후보도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간단한 발대식을 하거나 세월호 분양소를 찾아 공식 선거전에 들어갔다. 세 후보 모두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가 난 만큼 최대한 '정속모드'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광주시교육감 후보들도 곳곳을 돌며 유

권자들을 만났다. 장위국 후보는 장애인단체를 방문,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은 후 상일여고에서 열린 광주 교감단 모임에 참석, 교육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양형일 후보는 신세계사거리에서 2시간 동안 아침 출근인사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젊은층 공약을 위한 청년조직 발대식을 갖고, 오후에는 조선대 총학생회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윤봉근 후보는 첫 유세현장에서 교육지킴이·학교지킴이를 자칭해 의용소방관 복장과 소화기를 들고 시민들과 만나 표심을 호소했다. 김왕복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고영을 이사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표발 점검**

동구청장·남구청장 ▶4면  
광양시장 ▶11면  
곡성군수·구례군수 ▶12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새 총리 안대희 내정

남재준 국정원장·김장수 안보실장 사표수리

### 김기춘 실장은 유임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안대희(59)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수리했다. <관련기사 2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 내정 사실을 밝힌 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 총리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개각에 대해선 "내각 개편은 새로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정홍원 총리는 지금 세월호 사고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신임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의 사표도 수리했다"며 "후임인사는 조만간 발표



안대희 신임 총리 후보자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남 원장과 김 실장의 사실상 경질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타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37일째  
22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7면

### 외국인 관광객 1300만 시대... 광주·전남서 쓴 돈 0.4%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결제 규모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모두 전체 외국인 관광객 카드사용액의 0.2%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쇼핑·문화·관광시설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신한카드와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지난 2년간 외국인의 국내 신용카드 이용

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관광 부문에 사용한 금액은 5조718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5%나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광주에서 183억원, 전남에서 171억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모두 0.2%대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15위, 16위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2012년에 비해서 각각 29.3%와 27.2%가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약간 상회하지만, 부산 3831억원(6.7%), 경남 803억원(1.4%)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수치다. 최근 관광시설을 확충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충남(277억원)보다도 크게 뒤져 광주·전남 외국인 관광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깃발한 광주의 자존심, 시민여러분과 함께 찾겠습니다.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

## 강운태 만큼 일할 사람, 강운태 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광주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 풍요롭고 존경받는 도시의 꿈으로 가득한 사람  
강운태의 약속, 민선6기 광주의 차림표입니다.

- 질 좋은 일자리 18만개를 만들어 고용률 1위의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자녀양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 동광주 ~ 광산C 구간을 확장하고 용봉진입램프를 개설하겠습니다.
-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을 5개구에 분산해 재개발방식으로 짓겠습니다.
- 한국문화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문화컨텐츠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 무등산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하겠습니다.
- 2017년까지 UN안전도시로 지정받고, 100대 안전지표를 실천하겠습니다.
- 광주교도소 부지에 한국 민주주의 전당, 김대중 인권대학원대학, 5.18 유공자 임대아파트를 짓겠습니다.
- 124개 지구의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도심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1만7천호를 공급하겠습니다.
-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습니다.
- 31사단을 광주외곽으로 이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500개를 유치하겠습니다.
- 내년 11대회 「남북 단일팀」과 「판문점 경유 성화봉송」을 성사시키겠습니다.
- 건강타운을 추가로 짓고,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평등 군훈련장을 이전받아 호남최대의 테마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시장후보 | 무소속 |

중단없는 광주발전을 위한 선택

광주의 자존심  
**강운태 5**

